

지역공동체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 지역공동체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

박 병춘**

Key success factors of local communitie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 Based on a case study of local organizations -

Byung Chun Park

- Abstract -

This study is to perform a qualitative study of community organizations in order to identify key success factors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local communities. We study two intermediate-supporting institutions, Wanju Community Business Center for representing in farming and fishing community and Ansan YMCA in city community; two social enterprises EJANG and E-Um; and 12 local communities in rural areas. Key success factors can be classified largely into four dimensions: regional resources, people, strategies, and supports. First, it is highly desirable to survey and develop regional resources that have economic potential. Second,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discovering and nurturing talented persons so that they can realize their potentials and become confident leaders in the community, which should include the policy to support community animators. Third, a policy should be developed for strategic utilization of regional resources through rediscovery and/or creative reinterpretation. Fourth,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 differentiated policy service that could be a customized support to local communities in need of help.

Keywords: Local communities, Grass roots organizations, Key success factors,
Policy implications, Qualitative analysis, Policy-support services

* 본 연구는 2011년도 지역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교신저자, 계명대학교 경영공학과 교수, bcpark@kmu.ac.kr

1. 서론

본 연구는 현재 다양한 영역에서 다향하게 진화하고 있는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성공 요인을 규명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지역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형/복합사업형 사회적기업, 그리고 다양한 농어촌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사례를 조사 분석한다.

현재 지역공동체가 국가적으로 주목을 받는 배경에는 우리나라의 지역문제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이 매우 낙후되어 있는데,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한 수단으로 농어촌 및 중소도시 지역의 공동체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박병춘, 2012). 지역문제 및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지역공동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중앙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병춘, 2012). 그러나 정부주도의 정책 추진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임시방편적 공동체가 출현하거나 공동체의 자립성 및 지속성이 취약한 문제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배진영, 2010; 염돈민, 2010; 김광선, 2011; 유정규, 2011). 따라서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성공요인을 규명하고 벤치마킹하여 지역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조건 내지는 환경을 규명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의 자생 촉진, 정부지원 이후의 지속성 확보, 정부지원 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공동체(communitiy)란 용어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 정책의 개발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공동체를 협의로 “물리적 공간으로서의 일정한 지역을 주요 기반으로 하며, 지역주민과 생활전반에 걸쳐 서로 긴밀하게 사회적으로 상호작용하고, 공동의 목표와 가치라는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사회적 조직 단위체”라 정의한다(박병춘, 2012). 지역공동체는 공동체의 특성인 지리적 근접성, 인간들의 사회적 관계, 정서적인 동류의식(소속감) 중에서 지리적 근접성이 강조되는 공동체이다.

지역공동체에 관하여는 그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여기서는 지역발전이란 관점에서 본 연구와 비교적 관련성이 높은 몇몇 지역공동체 관련 문헌만을 소개한다¹⁾. 최병두(2006)는 공동체운동을 사회공동체, 생태공동체, 경제공동체, 문화공동체 운동으로 분류하면서 각각의 운동의 기반이 되는 자본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유성희(2008)는 지역공동체 형성화 과정 및 형성 모형을 연구하였다. 김영정(2008)은 공동체 조성을 통한 지역활성화의 대표적 전략으로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산과 생태적 환경을 활용

1) 본 연구에서 박병춘·최현석(2012)을 제외한 관련문헌 소개는 박병춘(2012)에서 인용함.

하는 지역활성화 전략을 연구하였다. 조권중(2010)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의 핵심요소인 사회적자본의 효과와 정책적 이슈를 연구하였다. 박병춘·김석찬(2012)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DB정보 플랫폼을 개발하였다. 박병춘(2012)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 방향을 연구하였다. 박병춘·최현석(2012)은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개발하여 지역공동체의 일반적 특성, 주력활동 분야별 특성, 활성화 과제 및 정책지원 서비스의 내용을 조사 분석하고, 정부 정책지원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지역공동체와 그렇지 않은 지역공동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부지원 사업과의 협력 필요성 및 바람직한 정책지원 서비스 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이상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아직까지 지역공동체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성공 요인 및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규명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역공동체가 “지역을 기반으로 더불어 삶”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이 중요하다(박병춘,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가치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관점, 즉 경영관리 관점과 공동체 가치 관점에서 성공 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한다. 사례 조사 및 분석 절차는 먼저 사업추진 배경 및 경과, 사업 내용 및 성과, 향후 계획 등을 고찰하고, 이에 근거하여 성공 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규명한다. 사례조사는 인터넷, 언론기사, 인터뷰 자료, 세미나 자료, 책자 등의 2차 자료에 의한 간접관찰을 중심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인터뷰를 병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를 설립목적 및 배경, 역할 및 기능, 사업 지역 및 규모, 사업 형태 등의 특성에 따라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도시형/복합사업형 지역공동체 조직, 농어촌 민간자율 지역공동체 조직으로 구분한다. 다음에는 인터넷, 언론기사, 책자 등의 문헌 조사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그 분야에서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조직들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중간지원 조직으로는 농촌 지역의 경우는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도시 지역의 경우는 안산 YMCA 사례를 선정한다. 도시형/복합사업형 지역공동체 조직으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형/복합사업형 사회적기업인 (주)이장과 (사)이음을 선정한다. 농어촌 지역공동체 조직의 경우는 성공 요인이나 시사점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이 없는 조직을 제외한 후 사례 내용이나 특성 유형이 비슷한 조직 중 대표적 사례라 판단되는 조직들만 포함시킨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2절에서는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지역공동체 중간지원 조직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농촌 지역의 경우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그리고 도시 지역의 경우 안산 YMCA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규명한다. 제3절에서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시형/복합사업형 사회적기업인 (주)이장과 (사)이음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규명한다. 제4절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대표적인 12개 지역공동체 사례를 조사 분석하고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규명한다. 제5절은 결론 및 제언을 기술한다.

2. 지역공동체 중간지원 조직

2.1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1)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완주군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역발전과 관련한 완주군의 다음과 같은 고민을 들 수 있다(이성호, 2010). 완주군의 경우 도시와 농촌 간의 괴리가 커지며 마을 공동체가 붕괴되고, 인구 감소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혁신도시가 307만평 규모로 추진 중이고, 봉동에는 첨단과학단지가 200만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나 대규모 투자 사업들이 지역 내 경제적 순환효과를 유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²⁾ 그 외 나머지 10개의 농업지역은 고령화가 약 46% 진행되었고, 이 중 80%가 농가인데 농가 중 50%가 연 소득 500만원 이하이다. 그 동안 정부로부터 약 150억 원 가량 자금이 투입되었지만 이것은 도시를 닦기 위한 정책이었다.³⁾ 전체적으로 자립 발전의지가 미약하고, 주민 추진 역량도 부족하며, 미래 비전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역재생⁴⁾과 활력을 위한 대안으로 완주군에서는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 프로젝트를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

- 생산혁신: 생산비 절감, 환경농업 전환시스템 구축
- 유통혁신: 소농, 가족 농으로 인한 유통 문제 해결을 위해 로컬푸드 추진
- 경영회생: 농가경영 회생 기금 조성
- 농촌활력: 자립적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마을회사 100개 육성
- 복지혁신: 민원기동반 운영 등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약속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완주군에서는 먼저 사업추

2) 봉동에는 1994년 첨단과학단지가 100만평 규모로 조성되어 1만 명이 상시 고용되어 있고, 2001년에는 추가로 100만평이 조성되어 2010년 현재 2만 명이 상시 고용되어 있으나 단지를 제외한 봉동 다른 지역은 옛날과 별 차이가 없음.

3) 지역 환경을 재생한다면서 컨테이너만 양산하는 정책 등.

4) 지역재생이란 지역의 산업, 기술, 인재, 관광자원, 자연환경, 문화, 역사 등을 유효하게 활용하여 그 지역의 基幹인 산업 재생 및 새로운 산업창출, 고용유발, 커뮤니티 재생 등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을 말함(유학열, 2008). 즉,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활성화와 동의어로도 사용할 수 있음.

5) 본 프로젝트는 2008년 수립되었는데, 5개 분야 매년 100억, 5개년 동안 500억을 투자하는 완주군 농업농촌 종합정책임.

진 환경을 조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통합적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먼저 군의 마을공동체 관련부서를 통합하여 전국 최초로 “농촌활력과”를 신설하였다⁶⁾. 또한 실, 과, 소 간부 및 읍면장 등을 중심으로 “마을 후견인” 제도를 운영하였다.⁷⁾ 한편 신규 마을의 경우 사업 구상이나 정책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젊은 공무원들을 “마을 호민관”으로 임명하였다.⁸⁾

지역공동체 사업은 현장 연구조사를 기초로 발굴하기로 하고 이를 선택리지 사업이라 명명하였다. 이를 위해 2008년 3월, 희망제작소와 완주 희망만들기에 관한 포괄적 MOU를 체결하여 지원을 받았다.⁹⁾ 선택리지 사업은 2008년 9월부터 2009년까지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발굴하고 활용하여 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완주군은 선택리지 사업을 통해 445개의 자원 및 66개의 사업모델을 발굴하였는데, 선택리지 사업은 다음의 단계를 따라 추진되었다.

- 문헌조사: 완주군지, 통계연보, 읍면지, 신문기사, 용역보고 등
- 현장조사: 마을조사, 마을별 자원조사 등
- 분석평가: 권역별·읍면별 특성분석, 사업 방향성 제시 등
- 사업계획: 방향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사업 제시

지역공동체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폐교를 활용하여 “지역경제순환센터”를 설립하고, 2009년 6월에는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 육성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가를 채용하였다. 2010년 5월에는 지역경제순환센터 내에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를 개관하여 선택리지 사업에서 발굴된 사업 모델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10년 11월 현재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에서는 5명의 전문가가 80 여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센터의 주요 역할은 리더육성 및 인재 발굴, 지역자원 조사 및 사업화, 지역공동체 시범사업 발굴 추진 등이다.

(2)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완주군의 사례에서 성공요인으로서는 첫째 의지, 둘째 사람(헌신적 전문가, 공무원), 셋째 연구/교육, 넷째 시스템을 들 수 있다. 첫째 요인으로서는 지자체 장의 의지와 리더십을 들 수 있다. 2006년 민선 4기(2006~2010)로 임정엽 완주군수가 취임하기 이전에는 완주

6) 농촌활력과는 마을회사육성센터, 로컬푸드센터, 도농순환센터, 완주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 공감문화센터 등, 모든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지원 조직을 전담하는 통합 조직임.

7) 2010년 11월 현재 87명의 간부들이 마을 사업의 마을 후견인으로 참여하고 있음.

8) 마을 호민관은 일종의 공무원 마을 코디네이터임.

9) 완주군은 2008년 3월 MOU 체결 후 희망제작소에 공무원을 파견하고, 2008년 12월에는 전국 최초로 커뮤니티비즈니스 전담부서를 신설함.

군에는 농정에 관한 자체 정책이 없었다. 완주군이 지역공동체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동인으로는 임정엽 완주군수의 강한 의지와 리더십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둘째는 전문조직(희망제작소)과의 협력관계를 통한 헌신적 전문가의 지원 및 공무원의 참여, 전문가 채용 및 사업을 추진할 리더 양성 등, 사람을 들 수 있다. 셋째는 지역사회에 대한 철저한 연구 및 교육을 들 수 있다. 완주군은 선택리지 사업을 통해 지역 내 다양한 자원과 사업모델을 발굴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 넷째는 민간, 행정,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및 통합적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을 들 수 있다.

완주군의 성공요인에서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 전문가, 활동가의 발굴 및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 둘째, 지역의 가치 발견 및 이를 네트워크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고민 위에서 지역 실태조사, 지역 자원 조사 등,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는 민간, 행정,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더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

완주군의 사례에서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자체 단위에서 지역 발전 사업을 추진할 때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따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 1) 지역 현실에 대한 명확한 진단
- 2) 지역발전에 대한 종합적 발전계획 수립
- 3) 통합적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 4) 전문 연구능력이 있는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역내 다양한 자원의 조사/발굴
- 5) 지역 거버넌스 및 중간지원 조직 육성을 통한 사업 추진

2.2 안산 YMCA

(1)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안산시에서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완주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발전과 관련한 고민 때문이다(류홍번, 2010). 안산시는 계획도시로 도로 및 교통, 공원과 녹지,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은 우수하나 시민들의 삶의 질 만족도는 매우 낮다.¹⁰⁾ 또한 인구의 전출입이 매우 많고, 사건사고, 시화호 및 대기오염 등, 안산의 부정적 이미지로 주민 정착율이 매우 낮다. 1986년 안산시 승격 후 개발정책으로 압축 성장을 하였으나 개발 가용지가 다 소멸되는 등, 도시 발전 패러다임을 변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공장 지가의 상승, 고임금 등으로 반월 시화공단과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이전

10) 2000년 경기개발연구원의 삶의 질 만족도 조사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안산시는 29위를 차지하였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공해 문제와 낮은 정주율로 인한 미약한 공동체성 등이 지목되었음.

함에 따라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영세 소기업 다수가 입점하면서 저임금 구조가 확산되고 외국이 이주 노동자가 전국 최대 규모로 증가하였다. 안산시는 경기도 내 도시근로자가게 소득이 제일 낮은 지역 중 하나이며, 맞벌이 부부가 많고 아동 및 청소년 비중이 높으며, 안산시 재정도 점차 열악해지고 있었다.

안산시는 지역재생과 활력을 위한 대안으로 1999년부터 안산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7년에는 2년 6개월의 논의 과정 끝에 안산시 좋은마을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였고, 안산YMCA를 위탁자로 선정하여 2008년 3월에 안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개설하였다. 센터 조직은 운영위원회¹¹⁾, 기획교육위원회¹²⁾, 자문위원회¹³⁾, 사무국¹⁴⁾으로 구성하였다. 센터는 주민지도력 육성, 주민 공동체 형성,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교육지원, 사업지원, 전문가 지원, 연대 지원, 정책/연구 지원 등의 사업을 담당한다. 예산은 공모사업(공간 환경개선 및 공동체 의식형성) 예산, 교육사업(리더육성 주민교육 및 워크숍) 예산, 사무국 운영 예산으로 구성되며, 2009년 현재 약 2억 2천여만 원이다.

사업추진 효과로는 1회 프로젝트성 사업의 단점을 극복하고 사업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한 것,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 외부 지원비 획득으로 재정문제 해결에 기여한 것,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이미지가 개선된 것을 들 수 있다.¹⁵⁾ 사업추진 애로점으로는 마을 지도력 육성이 쉽지 않고¹⁶⁾, 성과 위주를 원하는 자치위원회와의 갈등 문제, 열악한 사무국 인력 및 예산, 지역 거점을 만들 활동가 및 공간 부족, 70% 이상이 아파트인 지역 특성상 아파트 단지 내 마을만들기의 어려움, 소극적인 행정과의 협력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2) 성공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안산시의 경우 그 동안 마을만들기 성공사례로 주요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언론 및 인터넷 등에도 많이 소개되었고, 많은 단체 및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던 성공 요인으로서는 연구/교육과 거버넌스를 들 수 있다. 안산시는 정책 연구와 교육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 포럼을 통해 이슈를 해결하고 방향을 설정하였다. 한편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관협력포럼을 진행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형성하였으며, 민/관/의회/시민단체 간 협력 강화 및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여 사업을 진

11) 운영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 3명, 시민단체 3명, 시의원 3명, 전문가 3명, 의제21 2명, 위탁기관 YMCA 2명, 안산시 자치행정과장, 사무국장 등, 총 18명으로 구성.

12) 기획교육위원회는 운영위원 6명, 외부 1명으로 구성되며, 공모사업 기획 및 교육 등을 담당.

13) 자문위원회는 건축/도시/교통 관련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며 컨설팅 및 자문을 담당.

14) 사무국장 1인, 간사 1인으로 지원센터 상주.

15)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수상 등을 통해 긍정적 이미지 확산.

16) 마을지도력 육성을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이 중요한데 의식 변화나 교체가 어려움.

행하였다. 거버넌스 구조는 구청과 함께 현장단위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으며,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데도 큰 이점이 되고 있다.

안산시의 성공요인 또는 사업 추진의 애로점이 주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완주 비즈니스 센터의 경우와 비슷하게 첫째 지역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와 리더십을 갖고 있는 지도자, 전문가, 활동가의 발굴 및 역할 부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 실태조사, 지역 자원 조사 등,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와 이에 바탕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 행정, 전문가들을 포함하는 지역 거버넌스의 구축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한 통합적 행정지원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3. 도시형/복합사업형 지역공동체

3.1 사회적기업 (주)이장

(1)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주)이장은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신양북리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 지사와 부설연구소, 춘천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산하에 한국퍼머컬처센터, 푸른새미사업부, 부설연구소 「환경과사람」의 3개 사업부와 (주)생태건축집단 자인 및 (주)소박한풍경의 2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회적기업이다.¹⁷⁾ (주)이장의 사업이념은 생태주의를 기초로 하는 농촌지역발전을 지향, 농촌마을의 공동체 회복을 지원, 다양성, 실험정신,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컨설팅을 실행하는 것이다. (주)이장의 기업정신은 생태적 가치와 공동체 생활의 기업화, 생태계 보존과 지역공동체의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면서 이것을 사업화 하는 것이다. (주)이장은 1999년 5월 인터넷 이장을 창업한데서 시작하였으나 몇 번의 실패를 경험하였다. 그 후 2001년 8월 자본금 1억원으로 (주)이장을 창업하였으며, 2007년 1월 경기도 안성으로 본사를 이전하였고, 2007년 12월에는 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주)이장은 1999년 농촌 공동체를 살리면서 친환경적인 사업을 구상하던 서울대 환경대학원 출신들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세운 온라인 회사인 '인터넷 이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임경수 대표이사는 서울에서 태어나 1988년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하고 환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는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로 기업을 택했고, 농촌을 무대로 삼았다. 임 대표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농촌을 살리는 것이 환경 문제의 대안이라는 확신을 갖고, 도시민에게 농촌의 먹을거리를 공급하는 사업을 두 차례 했지만 모두 실패한다. 그 후 문제의 답은 생태마을에 있다고 판단하고 모범

17) <http://www.e-jang.net/index.php> (2011. 12. 01. 방문.)

적인 생태마을이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퍼머컬처로 공부하러 가 4주 동안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는 홍성으로 내려가 풀무원농업고등기술학교에 유기농 전문 과정을 만들고 직접 가르치는 일을 하였다. 임 대표는 도시나 농촌이거나 간에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곳에서만 희망을 발견한다는 지론을 가지고 있다.¹⁸⁾

(주)이장의 사업부인 한국퍼머컬처센터는 지역연구조사, 지역활성화·지속 가능한 경영 컨설팅, 생태농장학교 운영, 지역사회관광학교 운영, 창업과 일자리 창출 등을 담당한다. 한편 푸른새미사업부는 생태마을 조성 사업, 입주자 모집·교육·관리, 친환경건축 시공 등을 수행한다. 부설연구소인 「환경과사람」은 지역생태지도 작성의 전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을 보유하여 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자회사인 (주)생태건축 집단 자인은 생태건축 계획설계 수립, 생태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작성, 생태건축 사업관리/시공/감리 등을 수행하며, (주)소박한풍경은 새로운 눈으로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디자인’하며, 생태적인 관점과 지역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제공하여 농촌 살림과 지역 문화를 풍성하게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성공 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주)이장의 특성, 혹은 성공 요인으로서는 첫째 리더의 바른 가치관과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세를 들 수 있다. 둘째, 많은 경험과 노하우 축적을 들 수 있다. (주)이장은 2001년 농촌 마을가꾸기 사업이 시작될 무렵부터 많은 농촌마을과 지역에서 현장의 고민을 함께하고 노력하면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였다. 셋째, 다양한 분야의 전문팀 구성 및 운영을 들 수 있다.¹⁹⁾ 넷째, 통합적인 안목과 시각을 들 수 있다. (주)이장의 분야별 전문팀들은 프로젝트별로 결합하여 유기적으로 일하며, 각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정기적으로 상호 공유하며 통합적인 시각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다섯째, 여러 분야 전문업체들과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주)이장은 친환경농업, 전통음식, 문화예술, 농업유통, 재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회사들과 협력하여 일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TFT를 구성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의 힘으로 프로젝트의 내실을 기하고 있다. 여섯째, 사회적기업으로서 책무에 충실한 것을 들 수 있다. (주)이장은 2007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으며, “기업의 이윤 추구뿐만 아니라 지역 발전에 필요한 역할과 일을 창출하고 열심히 해 나가는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노력한다. 일곱째, 경영의 원동력을 자율과 소통, 유연성에 두고 있는 점이다. (주)이장은 회사의 큰 구상은 직원들과의

18) 지역에 그물망과 같은 안전망(공동체) 구축되어 있으면 어려운 사람들이 안정감을 느끼고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아 인구가 줄지 않으며, 돈이 순환되고 일자리가 계속 생기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개발은 이런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임.

19) 교육에서부터 지역활성화 컨설팅, 지역관광, 지역홍보 마케팅, 생태마을 조성, 생태건축, 생태도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등 농촌과 도시를 연계하여 지역활성화를 꾀하는 데 필요한 분야별 전문팀.

논의를 통해 결정하나 세세한 부분은 직원들의 자율과 책임에 맡긴다. 또한 조직이 비대해지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이 줄고 개인이 창의성을 발휘하기 어려워 업무별로 독립시키거나 아예 새로운 법인으로 분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 마지막 여덟째, 신속한 의사결정 능력 및 비전과 전문성을 들 수 있다. (주)이장이 공익적인 일을 하면서 조직형태를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으로 하지 않은 중요 이유는 사단법인 형태가 빠른 의사결정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가 영입이 어렵고, 그 경우 젊은이들에게 비전과 제대로 된 급여를 지급하기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 한다.

(주)이장의 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바른 가치관과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자세를 갖춘 리더의 발굴 및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전통적 시민운동 활동가, 풀뿌리형 지역 활동가, 또는 귀촌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업 경영, 유기농 농법, 도농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전문지식 등의 교육적 지원도 매우 중요하다.

3.2 사회적기업 (사)이음

(1) 사업 추진 배경 및 경과

(사)이음은 전북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 소재하고 있으며, 회장 1명, 대표 1명, 경영지원실 1명, 정책기획과 3명, 한옥생활체험관팀 12명, 농촌커뮤니티 3명, 공공미디어팀 3명 등, 총 24명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다.²⁰⁾ (사)이음은 전통 문화를 상품화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이음은 지역자원의 창의적 재해석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문화허브기업으로 지역과 계층을 넘어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문화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갖고 공적/사적 제3섹터를 넘나들며 좋은 일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을 끌어 모아 문화와 계층,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합하며, 현장 지식을 기반으로 협력적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1986년 전통문화사랑모임 동호회 형식으로 창립하였으며, 2002년 이후 전주한옥생활체험관 위탁 운영, 2004년 12월 사단법인 전통문화사랑모임 등록, 2008년 4월 노동부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인증번호 2008-02), 2009년 11월 사회적기업 (사)이음²¹⁾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사)이음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활동하던 김병수씨(현재 대표)가 중심이 돼 1986년 지역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이 모여 만든 전통문화사랑모임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20

20) <http://www.ieum.or.kr/> (2011. 12. 02. 방문.)

21) ‘이음’의 의미는 ‘세대와 지역을 넘어 문화와 사람을 잇는다’는 뜻임.

여년 동안 문화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래시장 공공디자인 사업, 한옥생활체험관, 전통술 박물관 등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문화 관광상품으로 만들며 문화기업으로 성장했다. 김병수 대표는 전주에서 태어나 대학(정치외교학)을 나왔으며, 서울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에서 일하다 하는 일에 회의를 느껴 인도 및 네팔 등을 여행한다. 그리고 돌아와 전주한옥마을의 한 찻집에서 한 3개월 머무르며 한옥마을과 남부시장을 다시 보게 된다. 그리고 좋은 것들이 너무 많아 지역의 자원을 자원으로 인식하고 그것을 디자인 하는 것이 내 할 일이라 자각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김병수 대표는 문화 생산력(문화를 상품으로 삼음)을 중시하며, ‘생산은 삶을 동경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사)이음의 사업영역은 창의적인 도시 문화 역량들을 발굴, 교육, 지원하는 아카데미 운영과 시민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작은 정책 제안’ 활동을 전개하는 정책기획과; 마을의 역사성, 현장성, 통합성을 모티브로 하는 새로운 문화적 감수성과 매체, 기술, 컨설팅 콘텐츠의 결합을 통해 지역문화 활성화 및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 공동체 문화 실현, 공공정책 개발, 공간정의 실현 등을 수행하는 농촌커뮤니티; 공공의 영역에서 창조적인 문화예술을 통해 지역과 공간, 환경, 사람 간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는 공공미디어; 전주 한옥마을을 이용하여 전통문화체험공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주한옥생활체험관 등이 있다. 그 외 대안 문화공간과 cafe 기능을 하는 P-bar; 문화와 예술이 한데 어우러진,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및 리빙아트 작업 활동과 한스타일 상품 개발 및 할머니 공방 등을 운영하는 청춘작업소; 전통 음악을 활용한 퓨전 공연단 그룹 “달이”²²⁾; 전주 향교를 전주 한옥마을의 문화관광 중심지로 발전시키며, 교육 및 관광콘텐츠 개발을 목표로 하는 향교문화사업단이 있다.

(2) 성공 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사)이음의 특성, 혹은 성공 요인으로서는 첫째 지역사회의 문화콘텐츠를 이용해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상품화 한 것을 들 수 있다. 둘째, 리더의 감수성과 창의력(디자인 능력), 연구/학습 자세를 들 수 있다. 이음은 문화적 감수성으로 새로운 문화영토인 대안적 시장영역을 개척하였다. 셋째, 자율과 참여, 존중과 협력의 기업 풍토를 들 수 있다. 넷째, 6차 산업이라 불리는 복합산업공간을 지향²³⁾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작고 단단한 연대를 지향한 것이다.

(사)이음의 사례가 주는 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주)이장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전통적 시민운동 활동가, 풀뿌리형 지역 활동가, 또는 귀촌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지역공동체 활

22) 달이(達二)는 ‘소통하다’는 뜻으로 예술과 사회, 예술과 일상이 소통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

23)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 2차 제조산업, 3차 서비스 산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함. 즉, 농촌에는 “농사짓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복합산업을 지향.

성화를 위한 조직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은 물론 기업 경영 및 도농교류 활성화 등에 관한 전문지식 등의 교육적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셋째, 지역 생태자원이나 역사/문화 콘텐츠, 특산물 등,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거나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중요하며, 정부 소유의 지역자원을 민관과 협력하여 발굴하고 민간에 위탁하여 산업화 하는 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지역공동체간 연대 및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4. 농어촌 지역공동체

여기서는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서 의미있게 활동하고 있는 민간자율 지역공동체 사례를 중심으로 공동체 사업 배경 및 경과, 사업 내용 및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하여 성공요인 내지는 특성을 규명하고 이의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한다.

4.1 농어촌 지역공동체 사례

(1) 전북 부안의 ‘에너지 자립마을(등용마을)’

등용마을²⁴⁾은 전라북도 부안군 하서면 장신리에 소재한다. 등용마을은 2003년 방사능 폐기장 사건 이후 대안적 삶과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는 것을 모색하다가 2008년부터 등용마을 약 30여 가구, 50여명 주민들이 에너지 자립마을을 준비하였다. 친환경 유기농, 에너지 자립도 높이기, 교육 등 세 가지를 주제로 에너지의 40%를 유기농 석유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꾸고, 아이들에게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위해 일본이나 독일 등, 외국의 사례를 참조하면서 마을만들기 방식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사회나 엘리트 몇 명 등, 소수의 리더들이 주도하는 방식 대신 주민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성공 요인임을 확인한다. 등용마을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두 가지 원칙은 첫째 주민들과 함께 가며, 둘째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것²⁵⁾이다.

등용마을은 마을주민들의 80%가 천주교 신자이다. 마을에는 1918년 부안에서 최초로 세워진 천주교회인 부안성당이 있는데, 부안성당은 마을공동체 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 12월 현재 단열을 위한 집수리와 2008년 주민들이 투자해서 설치한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이용해 에너지소비를 30%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에너지

24) <http://buanpower.tistory.com/> (부안시민발전소)

25) 중앙정부의 지원금이나 보고서, 또는 외부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 천천히 스스로 주민들과 함께 실천하며 공동체성을 함께 회복해 가는 것.

의 50%를 충당하고 있다. 향후 계획은 인근의 친환경 영농조합 법인과 연계하여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공정을 세우고, 마을회사를 만들어 석유 보일러를 교체해 나가는 것이다.

(2) 전북 진안의 ‘(주)공정여행 풍덩’

(주)공정여행 풍덩은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대광1길 15-7 2층²⁶⁾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0년 10월 전라북도에 의해 선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진안은 산업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 생태적 환경이 우수하고, 면적이 서울보다 1.3배나 되지만 인구는 2만 7천여 명밖에 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임야로 구성된 지역이다. (주)공정여행 풍덩은 문화해설사들의 작은 학습동아리 모임에서 시작되었다. 문화해설사들이 함께 향토 자원을 조사하고 견학도 하면서 지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회원들 간의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였는데, 진안에 대한 소개 요청이 늘어나면서 사업단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처음에는 외부 손님의 숙식을 마을회관에서 제공하고, 마을부녀회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수익을 남기었으나 이후 공예나 로컬푸드로 연계, 상품 판매를 통하여도 수익을 남기고 있다.

(주)공정여행 풍덩은 농촌 마을이 갖는 유·무형의 다양한 문화적, 향토적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의 잠재된 가치를 기반으로 한 공정여행을 목적으로 한다²⁷⁾. (주)공정여행 풍덩은 농촌여행으로 발생한 수익이 지역 내부로 순환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또는 뜻있는 단체와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사회 내 공동체 의식 및 지역커뮤니티를 활성화하려 한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가이드가 여행객을 직접 안내하며, 마을민박을 이용하고 마을부녀회가 제공하는 시골밥상으로 식사를 제공한다.

(주)공정여행 풍덩의 성공요인으로서는 맛집, 숙식, 향토 역사자원, 시설 체험자원, 방문지 등을 직접 현장 조사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연간 60여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오는 마이산, 섬진강의 발원지인 데미샘, 지역특산물인 홍삼과 축제, 마실길, 특산음식, 농장 등, 지역 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향후 계획으로는 공정여행 전문가 이드 양성 프로그램 개발, 농촌관광, 도농교류연대, 향토문화연구 및 지역조사, 생태여행·농촌여행 등의 의제 형성 등이 있다.

(3) 경남 창원 ‘다감농원’

다감농원은 경남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모산리 672-4²⁸⁾에 소재한다. 다감농원을 비롯

26) http://www.jbse.or.kr/korean/SubPage.html?CID=pages/jeonbuk05_view.php&&co_id=55 (전북사회적기업)

27) 비교적 잘 보존된 생태자원을 발굴하고 마을과 연계된 풍부한 역사문화자원 및 지역주민을 기반으로 한 공정여행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운영함으로써 농촌형 여행네트워크 구축 및 향후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해 마을의 10여 농가는 2007년부터 농협의 지원을 받아 팜스테이 사업을 벌였다.²⁹⁾ 2008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녹색농촌체험마을, 2009년에는 농진청 체험교육농장으로 지정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다감농원 강창국 대표³⁰⁾는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자라고 공부하면서 감정평가사로 일하다 1990년대 중반 고향으로 귀농한 후 할아버지 때부터 3대째 대를 이어온 단감 농사를 짓고 있다. 강 대표는 팜스테이를 주도하고 있으며, 잘사는 농촌을 만들려면 1차 생산, 2차 가공, 3차 판매 서비스를 넘어 4차 농촌문화 체험³¹⁾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다감농원의 단감은 일반 품질의 단감보다 5배 이상 값이 나가며, “좋은 예감”이라는 고유 브랜드로 유명 백화점에 고정 납품하고 있다.³²⁾ 다감농원 교육농장의 차별성과 경쟁력은 자연 친화에 있으며, 농원 안에서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도 운영한다. 또한 창원 등의 기업들과 1사 1촌 자매결연도 맺어 현장 체험뿐만 아니라 농번기 영농지원, 농산물 직거래, 체험시설 지원 등으로 관계를 확장 중이다.

(4) 충남 서천 ‘얼굴있는 먹거리’

서천지역 먹거리 생산자조합 ‘얼굴있는먹거리’는 충남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에 소재하며, 2010년 11월에는 충남형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었다. 얼굴있는먹거리는 이재국 사무국장³³⁾이 2002년 고향인 서천으로 귀농하여 서천군의 지원을 받아 ‘생산자 조합 포럼’을 운영하면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처음에는 주민들과 두부를 만들어 직접 배달을 하면서 사업을 시작하였고, 다음에는 자유방사 유정란 생산 닭을 키워 달걀을 생산하였다. 이어 두부, 달걀, 쌀, 김, 된장 등, 지역 내 생산 농가를 모아 서천지역 먹거리 생산자 조합 ‘얼굴있는먹거리’를 결성³⁴⁾하였다. 조합원은 대부분 소농이다. 서천에서 젊은 ‘유정란 아빠’로 통하는 이재국 사무국장은 1,000평의 양계장에서 3백 마리의 닭을 친환경적으로 직접

28) <http://new.hi-farm.com/store/D04012/>

29) 팜스테이란 농가에서 숙박을 하면서 영농, 농촌문화 체험, 인근 지역 명승지 관광, 지역 축제까지 참여하는 농촌문화 체험 관광을 말함.

30) 강 대표는 창원 단감 수출 작목반 회장인데, 작목반은 월 2회 이상 단감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스티디 모임을 갖고 있는 등, 반원 모두가 공부하지 않으면 농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고 배우고 있음. 창원 작목반 농가들은 대규모로 경영할 경우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중소 규모 경영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규모가 문제가 되는 경우 작목반원들끼리 사안별로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으로 대처할 예정임.

31) 절기마다 메주 담그기, 미꾸라지 잡기, 벼 베기, 논 습지 체험, 단감 와인 체험, 단감 따기 등.

32) 명품 단감 생산 비법 중 하나는 화학비료 대신 쌀겨, 왕겨 등 퇴비를 만들어 땅심을 높이는 100년을 내려온 농법을 사용하는 것임.

33) 이재국 사무국장은 1991년 한양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1998년에 졸업한 후 귀농하기 전에 ‘교육개혁시민연대’에서 교육운동에 매진함. 이 때 아이들의 먹거리에 대한 문제의식이 형성됨. 2002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자활후견기관에서 영농사업을 맡아 하면서 로컬푸드에 접하게 됨.

34) ‘얼굴있는먹거리’라는 브랜드는 생산자들이 자기 얼굴을 걸고 물품을 생산해 낸다는 뜻을 의미함.

키우며 서천에서 로컬푸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천지역 먹거리 생산자 조합이 자체적으로 직접 개설한 직매장³⁵⁾은 조합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전국 최초의 직거래 장터형 직매장이다.

생산자 조합원들은 유정란, 생선, 김, 된장, 장류 등 40여 가지 농수산물은 생산하고 공급한다. 서천지역 먹거리 생산자 조합은 직매장 이외 두부, 콩나물 등을 생산하는 가공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신속하고 체계적인 배달을 위해 유통시스템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서천읍의 매장에서는 생산자조합에서 생산하는 먹을거리 이외에도 서천지역에서 생산한 먹거리, 기타 로컬푸드의 취지에 뜻을 같이하는 타 지역 로컬푸드 단체의 생산 품목도 연대 차원에서 취급하고 있다. 조합은 서천읍 대형마트 매장 안에 솥인솥 형태로 독립형 판매 코너도 운영한다.

이재국 사무국장은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신뢰와 믿음이 지역의 소농을 살릴 수 있으며, 농업이 1차, 2차, 3차 산업을 융합시킨 6차 산업이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³⁶⁾ 또한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을 1차 목표로, 도시와 농촌을 지역 먹거리 운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제2차 목표로 하고 있다.

(5) 전북 완주 '농촌살림연구소'

농촌살림연구소는 전북 완주군 고산면 울곡리³⁷⁾소재하며, 산하에 부설기관인 '고산산촌유학센터'와 '高山지구여행학교'를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³⁸⁾이다. 고산 산촌유학센터는 '기숙형 농어촌 유학 사업'의 국내 1호로, 이 분야에서는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곳이다. 유학센터 선생님들은 돈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대안적 삶에 대해 고민하고 삶의 가치와 지향을 보고 온 사람들³⁹⁾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은 동네에 있는 봉등초등학교 양화분교에서 공교육을 받고 방과 후 시간은 유학센터에서 보낸다.⁴⁰⁾ 학교의 모든 재정은

35) 직매장은 강기원 조합장과 이재국 사무국장이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주 사회적기업 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일본 생활협동조합도 견학함.

36) 농산물을 그대로 배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두부나 장류 등 가공품을 만들어 부가가치를 더하고, 여기에 '건강먹거리여행'이라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를 서로 만나게 하고 있음.

37) <http://cafe.daum.net/Confucian>

38) 전라북도와 완주군청에서 지원하는 「귀농귀촌일자리사업」에 농촌살림연구소가 선정되어 인건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음. 농촌살림연구소를 만든 주요 요인은 고산 산촌유학센터가 임의단체여 정부 지원 등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 함.

39) 산촌유학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아동심리 상담, 영어강사, 국선도 사범, 사진작가 출신 등 전문역량을 가진 귀농·귀촌자들로 대부분 NGO활동가 출신이며, 이들은 대도시에서 유학 온 초등학생 20여 명과 함께 생활하고 있음.

40)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담당하고, 산촌유학센터는 오감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행복 찾기를 해 주는 형식임. 고산산촌유학센터에서는 공교육을 인정하고 학교를 믿기 때문에 학교로 찾아가서 선생님들을 만나 정기적인 간담회를 열기를 희망하는데 양화분교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잘 성사되지 못하고 있음. 일본의 경우 100군데가 넘는 지자체에서 이미 산촌유학을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산촌

아이들의 유학비용으로 충당하고 있어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있는 부모의 아이들이 오는 편이며⁴¹⁾, 정원의 일부는 사회적 취약계층 아이들을 받고 있다.

산촌유학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이 공동체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동시에 개인의 삶의 자세를 바로 세우게 하는데,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교사회의⁴²⁾를 통해 정해진다. 고산산촌유학센터 조태경 대표는 10여년 전 귀농하기 전 서울에서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서 활동가로 오래 일했는데, 반환경적이고 반생태적인 공간에서 환경을 살리자고 했던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삶의 지향점과 불일치하여 고민을 하다가 이러한 삶을 벗고 근본적인 가치에 맞는 삶을 찾으려 시골로 귀농하였다 한다.⁴³⁾

농촌살림연구소는 농촌이 지닌 미래의 사회적 가치를 이해하고 알려나가는 주체로서, 학생과 학부모 등 모두가 참여하는 농촌(자연 및 생태) 배움 공동체를 지향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농촌 유학을 통한 지속 가능한 마을 만들기, 농촌 유학 현장 활동가 발굴 교육과 지원 협력, 지역 농가와 연대한 농촌형 산촌유학 모델 개발, 농촌 사회를 지원하는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연대 사업 추진 등⁴⁴⁾이다. 현재 국내 최초의 센터형 농촌유학센터인 고산 산촌유학센터의 브랜드 가치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이고, 농촌 유학 연구사업을 통한 DB 구축, 매뉴얼 개발과 지자체 보급, 관련 컨설팅 사업의 추진, 유기 농업을 근간으로 자급자족적 삶을 생활화하는 생태공동체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다⁴⁵⁾.

(6) 경남 하동 ‘지리산학교’

지리산학교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봉대리 389⁴⁶⁾에 소재하며, 하동 악양골과 화개골을

유학법, 산촌유학 보험제도까지 완비되어 있고, 조례제정도 모두 끝낸 상황임. 특히 문부성, 교육청, 자자체가 서로 협력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있음.

- 41) 입학 경쟁률이 5대 1이 넘을 정도로 치열한 편이며, 부모의 직업 비율을 보면 의사, 회계사 등 고소득 직업이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42) 교사회의는 민주적으로 매일 진행되고 사소한 교육과 행사, 활동의 모든 내용을 논의하고 결정하며, 결정된 모든 사항은 부모들에게 공지됨.
- 43) 조태경 대표는 인천 출신으로 농촌 생활 경험도 전무하고 더구나 전북 지역에는 연고가 전혀 없었음. 2002년 귀농을 결심하고 전북 부안의 어촌 마을에서 유기 농업을 시작하였으나 실패로 귀결됨. 2005년 완주로 이주하여 단식캠프, 요가 캠프, 명상 캠프, 어린이 캠프 등을 맡아 운영함. 2007년 2월 국내 최초로 집단 숙식형·장기체류형 산촌 유학사업을 시작함. 그러나 준비 안 된 귀농은 실패로 귀결되었고, 그 이후 그는 농사를 기반으로 한 생계는 포기하고 먹고 살기 위해 산촌유학을 시작함.
- 44) 이를 위해 정부지원사업, 거버넌스 연구수행, 산촌유학 컨설팅 및 모델링사업, 완주군 산촌유학센터 건립사업, 농촌살림 소득개발사업, 산촌유학연구 및 산촌부모 양성과정, 귀농귀촌학교, 농촌형 사회적 기업, 농촌공동체회사 등을 추진 중임.
- 45) 선생이 아이들과 한방에서 자며 아이들의 동반자 역할을 하는데,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약 80만 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수준임. 재정이 어려워 주변에서 자원봉사의 방식으로 교사, 보조자, 주방장 역할을 하여 도움을 주고 있음.

46) <http://cafe.daum.net/jirisanartschool>

중심으로 지리산에 터전을 잡은 문화예술인과 지역주민들이 창작활동을 벌이는 학교이다. 지리산 학교는 군이나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로도 등록하지 않았다. 지리산학교는 학교 건물이 별도로 없으며, 지리산과 지리산 자락의 마을들을 학교⁴⁷⁾로 하고 있다. 지리산 학교는 교사대표를 맡고 있는 사진작가 이창수씨⁴⁸⁾가 “우리 이대로 홀로 사는 삶에 안주하지 말자. 지리산을 위해, 지역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도모해보자”며 운을 뗀 게 발단이 됐고, 박남준 시인⁴⁹⁾과 이원규 시인이 적극 동조하여 시작되었다.

지리산학교는 학교 문을 연 이래, 지역사회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데 활동과 사업의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보고, 듣고, 느끼고, 나누며 자신의 창작물을 만드는 현장교육을 지속하고 있다.⁵⁰⁾ 모집하는 기수마다 100여 명의 지역주민이 찾아와 수강하며, 강좌는 매주 1번씩 지리산 자락에 산재한 여러 곳의 공방과 강의실에서 나뉘어 열린다.⁵¹⁾ 지리산학교 공동체는 섬진강 청소도 함께 하고, 지리산 1천5백리길을 생명평화순례단과 함께 밟기도 하며, ‘동네친구들’이란 밴드도 만들어 악양 지역민을 위해 공연도 하는 등, 지역민으로서 제 역할을 기꺼이 찾아함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7)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비영리민간단체 여민동락⁵²⁾은 전남 영광군 모량면 영양리에 소재하는데, 90년대 후반

47) 즉, 지리산 자락 곳곳에서 수업이 벌어지는 모든 공간과 동선이 지리산학교임. 또한 교장을 교장이라 부르지 않고, 군이 교사대표로 부르는데, 그 이유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교, 사랑방 같은 학교, 모여서 즐겁고 소박한 학교,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직위에 매달리지 않는 학교, 정관이나 내규에 우선하기보다 서로 신뢰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기로 회의를 통해 결정했기 때문이다.

48) 이창수 대표교사는 중앙대 사진학과를 졸업하고 ‘샘이 깊은 물’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한 이후, 이어 국민일보, 월간중앙 신문사와 잡지사 등, 16년간 사진기자로 생활하다 1999년 어느 날 현재의 자신에 회의를 느껴 그해 연말 다니던 언론사를 그만두고 지리산으로 하방함. 아강퀵트를 열어 지리산학교에서 퀵트를 가르치는 안경임씨가 그의 부인인데, 부인도 1년 후 초등학교 교사를 그만 두고 그의 뒤를 따라 내려옴. 지리산자락에 터를 잡기로 결심한 이씨 부부는 악양에서 제일 높은 지리산 자락 형제봉 중턱에 1만 5,000여 평을 땅을 사들여 녹차밭을 일군.

49) 박시인은 지리산학교에 나가는 일 말고도 ‘섬진강과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지역단체를 만들어 이끌고 있는데, 이 모임은 정부와 하동군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알려진 섬진강변 19번 국도를 4차선으로 확장하려는 개발 사업을 벌이자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

50) 문화와 예술을 업으로 살아온 전문강사 12명은 시문학반, 그림반, 기타반, 목공예반, 숲길 걷기반 등 12개 강좌를 열고 있음. 출강하는 강사들은 돈을 벌며 먹고 살아보려는 목적이 아니라 지역에 봉사하려고 자원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운영구조임.

51) 별도로 매달 1번 공개강좌를 열거나, 지리산학교의 날 행사에 맞춰 특별한 강사를 초청해 특강을 열기도 함. 지리산학교에는 하동군민 뿐만 아니라 하동에 인접한 구례, 광양 등에 사는 주민들까지 찾아오며, 강좌별 정원은 10명 안팎임.

52) ‘여민동락(與民同樂)’이란 여럿이 함께 만드는 즐거운 세상이라는 의미임.

학생운동을 이끌었던 강위원⁵³⁾·양효라, 이영훈·이민희, 권혁범·김강선 젊은 세부부가 주민 일체형 농촌 복지의 새 모델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1년 반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2008년 6월 노인복지시설을 세운데서 시작하였다. 여민동락공동체는 농촌의 교육과 문화, 복지와 경제의 복원 및 부흥에 보탬이 되는 통합적 생활공동체를 추구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나 외부의 시혜적인 지원을 받지 않고 지역민들과 지인들의 후원금, 그리고 부대사업 수익금으로 자립형 농촌마을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설립정신⁵⁴⁾을 갖고 있다. 2011년에는 행정안전부 “자립형 마을유통센터-마을가게 동락점방” 과제로 3천만원을 지원 받았다. 여민동락의 가장 큰 취지는 농촌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복지는 사업의 일부분일 뿐이다.

여민동락 강 대표는 제도적 복지 안에 갇힌 폐쇄적 복지에서 벗어나 농촌과 농업을 살리는 지역복지운동이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과 농촌의 21세기적 가치를 지향하는 비정부·비영리 기구들을 조직하고 이것을 광역적으로 연대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여민동락은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영광 특산물인 모싯잎 송편을 만들어 파는 ‘여민동락 할매손’과 마을기업-동락점방, 농사마을-동락원(同樂園)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노인복지센터와 묘량 귀농귀촌지원센터, 행복농촌 두레사업단, 주인없는 시골책방-同樂을 운영하고 있다. 여민동락의 최종 목표는 묘량면에 있는 8개 마을을 모두 마을기업으로 만들어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 모두를 지역발전으로 환원하는 것이다.

(8) 충북 단양 ‘한드미마을’

충북 단양 한드미마을은 소백산 정상인 비로봉(1440m) 아래 Y자형의 크고 깊은 골짜기에 40여가구 70여명이 모여 사는 조용한 산간마을⁵⁵⁾이지만 최근 몇 해 사이에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행정자치부의 정보화마을사업 및 팜스테이 마을 지정, 농림부의 녹색농

53) 여민동락공동체 강위원 대표는 고향이 영광 묘량면으로 1989년 고3 때 ‘광주지역고등학생대표자협의회(광고협)’ 의장을 맡아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다가 구속돼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어 1997년 전남대 총학생회장 겸 한총련 5기 의장을 맡았다 다시 구속돼 4년 2개월 동안 수형 생활을 했음. 대구 효경노인복지센터에서 3년이 넘도록 사회복지를 공부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온 강 대표는 자립형 농촌복지시설을 만들어보고자 귀촌을 결심, 지난 2008년 지인들과 함께 여민동락복지공동체를 시작함. 현재 전남 영광 여민동락공동체 대표와 광주 광산구 운남권 노인복지관장을 맡고 있음. 2011년에 광주지검 제3기 검찰시민위원으로 위촉됨. (2011년 09월 30일 영광신문(press@ygnews.co.kr) 기사.)

54) 적어도 처음 3년간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세부부의 이런 노력이 점차적으로 지인들과 마을주민들에게 알려진 결과, 두 동의 건물은 부부들의 사비로 지었지만, 책상을 비롯해 에어컨, 책 등의 물품은 100% 후원을 받아 마련하였음. 또한 지인들에게 꾸준히 알리고 인터넷 포털에 카페를 만들어 홍보를 한 결과 현재 450여명으로부터 5천원에서 10만원까지 꾸준한 후원을 받고 있음.

55) ‘한드미’라는 지명도 ‘큰 골짜기’라는 뜻이라 하며, 이곳을 가로질러 흐르는 깨끗하고 맑은 냇물은 남한강의 발원지인 하일천임.

촌체험마을 및 마을종합개발사업 등, 농촌시범사업 대상마을로 연속 선정된 뒤부터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였다. 마을 대표인 정문찬⁵⁶⁾씨는 지난 2005년부터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토대로 생동감 있는 지역, 생태적인 보금자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섯 개 리, 14 곳 자연부락을 하나로 묶어 한드미 농촌 체험마을을 만들었다. 또한 2007년 아이들이 줄어 인근 대곡분교가 폐교 위기에 처하자 도시 아이들을 대상으로 유학센터를 열었는데, 2011년 12월 현재 한드미 농촌유학센터에는 초등학생 35명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다.⁵⁷⁾

다른 농촌체험마을에서는 볼 수 없는 한드미마을만의 독특한 체험거리는 단연 '삼굿구이'⁵⁸⁾이며, 이 밖에 이 마을에서는 고로쇠 수액 및 산나물 채취, 고기잡이, 개암과 도토리 줍기, 목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거리가 계절따라 이뤄지고 있다. 한드미마을은 권역사업인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가장 큰 목표인 골짜기 전체를 청정 구역으로 만들기 위해 농사 짓는 방법에서부터 산림개발 방식까지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합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9) 충북 괴산 '솔피농장'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180-1에 소재한 괴산 솔피농장은 남한강 상류 속리산 국립공원 지역, 풍경이 아름답고 오염이 덜 된 맑은 산골에 자리하고 있다. 1994년 2월 지역의 뜻있는 젊은 농부들 5가주로 시작해 1996년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고 공동으로 땅을 마련하였으며, 2006년에는 정부지원과 용자를 받아 가공공장을 짓고 고추장과 엿기름, 메주를 생산하고 있다. 2008년에 '한살림 농업살림기금'과 소비자들의 출자, 모금, 노력봉사 등으로 도농교류회관인 '솔피어울림터'를 건립하였다. 2010년 7월 현재 솔피농장은 15가구 2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데, 충북 괴산군과 경북 상주시의 접경 지역이라 회원들도 경북 사람, 충북사람이 섞여있고 토박이와 귀농자들의 비율도 거의 반반이며, 회원 중에는 신부님과 수녀님도 있어 다양하고 특이한 인적구성을 이루고 있다.⁵⁹⁾ 솔피농장 공동체 회원

56) 부산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1998년 고향마을로 귀촌한 정문찬씨는 '농촌을 가장 농촌답게 만드는 게 경쟁력'이라는 신념으로 벽돌담을 돌담으로 바꾸고 생태화장실을 만드는 등 갖가지 노력을 기울여 도시민들이 찾는 산촌마을로 일궈냈다. 2011년 현재 이장을 7년째 맡으면서 한드미 마을을 농촌 체험마을로 탈바꿈하여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농촌유학센터를 설립해 마을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였음.

57) 이들은 '도시 유학생'들로, 일반 학과수업은 인근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에서 지역 아이들과 같이 하고, 방과 후에는 유학센터에서 필리핀 원어민 교사를 비롯한 8명의 생활지도교사가 짠 프로그램에 따라 여가시간을 보내며 텃밭을 가꾸거나 전통놀이를 하고 외부강사에게서 기악과 댄스를 배우기도 함. 한드미 유학센터에는 아이들 말고도 외국에서 온 유학생들이 함께 지내고 있는데, 그들은 한드미 마을 농촌체험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음.

58) '삼굿'은 본래 삼의 껍질을 벗기기 위해 삼을 찌는 구덩이나 솥을 말하는데, 여기에서 착안한 '삼굿구이'는 구덩이에서 돌을 뜨겁게 달군 뒤 물을 부어 뜨거운 수증기로 음식물을 익혀먹는 방식임.

59) 이러한 다양성이 솔피농장이 농사나 경제적인 관점에만 머무르지 않고 지역활동이나 환경문제, 삶의 가치에 무게를 두는 여러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 요소임.

이 되려면 1년 동안 300평의 농사를 유기농으로 지어야 하며, 일명 ‘유기농업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솔피농장은 개별 생산자들이 각자의 농산물을 생산해서, ‘솔피공동체’ 이름으로 한살림 등에 공급하며, 연 매출의 3%를 공동체 운영자금으로 각출한다.⁶⁰⁾ 그 외에도 ‘농사의 품질관리’, ‘유기농 품질 기준관리’, ‘농사 협력’, ‘도농교류를 위한 협력’ 등을 공동체 방식으로 함께한다. 귀농자들 대부분이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회에서 전문가로 활동한 경력이 있으며, 다른 공동체와 달리 어떤 개인의 특출한 리더십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아니고 매달 15일에 열리는 월례회를 통해 모든 농장의 대소사를 결정한다. 솔피농장이 추구하는 것은 진실한 소통이며, 유기농 농산물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것처럼 서로 믿는 사회를 만들어간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10) 경북 의성 ‘쌍호공동체’

경북 의성군 안사면 쌍호리, 의성과 안동과 예천의 경계 근처 낙동강변에 위치한 쌍호공동체는 17가구로 이루어져 있는 마을로서, 모범적인 농민운동과 농민공동체로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쌍호공동체의 역사는 마을의 실질적인 리더인 우영식씨가 1978년 가톨릭농민회 쌍호분회를 출범시키면서부터 시작된다.⁶¹⁾ 쌍호공동체는 엄혹한 군사정권 시절인 1979년부터 8개 농가가 가톨릭 신앙을 중심으로 농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고, 80년대 안동 지역 및 전국에서 일어난 각종 농민관련 사건들에 맞서서 마을 주민들이 가톨릭농민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투쟁을 전개하였다.⁶²⁾ 1994년 WTO가 시작되면서 쌍호공동체는 생명농업으로 전환한다. 생명농업을 시작하면서 쌍호공동체는 소농 구조를 지키고, 하나의 작물에만 집중하지 않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며, 공동 작업을 한다는 원칙을 설정하고 상업적인 영농을 지양한다.⁶³⁾

60) 찹쌀, 토마토, 고추, 늙은 호박, 수세미 등의 1차 농산물과 가공품으로 고추장, 엿기름, 메주 등을 생산하여 공급함. 건고추를 청주한살림에 공급하면서 한살림과 인연을 맺기 시작했고, 98년부터는 토마토와 찹쌀을 본격적으로 서울한살림에 공급하게 됨. 2010년 7월 현재 논 2만 5000평, 밭 2만평을 짓고 있으며, 출하금액은 5억 5천만 원 정도임.

61) 가톨릭농민회 쌍호분회는 1990년대 초반 생명농업을 시작하면서 쌍호공동체라고 불리기 시작함.

62) 구한말부터 가톨릭의 영향을 깊이 받아 마을 주민의 거의 모두가 가톨릭 신자인 쌍호공동체는 1979년 안동농민회 ‘오원춘 사건’을 계기로 인근 농민들의 신뢰를 얻어 운동의 튼튼한 기반을 갖게 됨.

63) 쌍호공동체 농민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유기농공동체로 탈바꿈하였으며, 벼와 양파를 중심으로 마늘, 파, 수박, 고추와 각종 쌈채류 등 농가별로 3~4000평 규모에서 다양한 품목을 소량 생산하고 있음. 과거에는 유기농이 부족했기 때문에 많이 경작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WTO가 시작되면서 많은 단체와 농민들이 유기농을 하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되어 경작 면적을 확장한 농가들은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 함. 무농약으로 전환한지 십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수확량은 기존 농법보다 많지 않고, 노동력은 몇 배로 더 들고, 몇 해에 한 번은 병충해 때문에 그대로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처럼 힘든 농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시 소비자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공급해야 한다는 긍지와 사명감 때문이라 함.

현재 농가마다 소를 서너 마리 정도 키우며 소에서 나온 우분을 숙성시켜 다시 밭으로 내보내고 밭에 보리를 심고 벼짚이 다시 소의 먹이로 돌아가는 마을 순환농업을 중시하고 있으며, 공동퇴비장외에도 공동우렁이장, 공동과채기를 통한 공동작업과 품앗이 등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⁶⁴⁾ 예전에는 마을 전체가 경작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생산을 시도한 적도 있었으나 현재는 개별경작과 공동판매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고, 공동가공업도 소규모로만 행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쌍호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남성과 여성 가릴 것 없이 17가구 전체 성원이 참여하여 매달 개최하는 '월례회'⁶⁵⁾이다. 쌍호공동체가 앞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과 든든한 협력관계를 확립하는 것, 즉 구체적인 한 지역과 공식적인 관계를 맺어 도농협력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현재 회원들의 노령화로 농사가 갈수록 힘에 부치고 있으나 마을에 젊은 후계자가 없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라 한다.

(11) 경북 고령 '개실마을'

경북 고령군 쌍림면 합가리에 소재하는 고령 개실마을은 무오사화 때 화를 입은 점필재 김종직의 5대손이 1650년경에 이 마을로 피신 와서 살기 시작한데서 유래된 마을로 선산 김씨들의 집성촌 마을⁶⁶⁾이다. 개실마을은 90% 이상이 한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들이 양반 풍속을 비롯한 옛것을 지키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다. 마을공동체 조직으로는 개실마을가꾸기사업 추진위원회가 2001년 12월에 조직되었고, 이를 중심으로 작목반, 부녀회, 노인회, 향우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6년 12월 12일에는 개실마을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현재 연간 5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개실마을은 2003년 대가야 팜스테이마을로 시작해 2005년 개실마을로 이름을 바꾸고 가정 민박, 계절별 농산물판매, 체험프로그램 운영, 농산물가공품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2010년 방문객이 4만3천 명에 이르는 성과를 거두었다.⁶⁷⁾ 2011년 12월 6일 농협중앙회는 '제1회 팜스테이마을 대상' 시상식

64) 90년대 초반 이후 이 마을에서 행해지는 모든 농사는 철저히 무농약의 원칙으로 행해지고 있으며, 벼농사도 오리농법과 우렁이농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65) 쌍호공동체가 그 무서운 탄압과 어려움을 헤쳐 올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첫째 쌍호리 자체가 가톨릭 신앙으로 뭉쳐진 동네라는 점, 즉 구성원 대부분이 가톨릭 신자이다 보니 어려움을 서로 이해하며 공동체를 이끌어 올 수 있었고, 둘째는 1978년 가톨릭농민회 쌍호분회 시절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월례회의를 들 수 있음. 월례회에서는 마을의 공동결정을 내려야 할 주요 안건들 뿐 아니라 공유해야 할 각종 정보와 소식, 이야기 등이 허심탄회하게 공유되는, 그야말로 완벽한 직접 민주주의의 장임. 성원 중 한 명이라도 이의를 제기하게 되면 처음부터 안건을 다시 검토하며, 지난 70년대 후반 이후 단 한 번 건너뛴 적 말고는 지금까지 거르지 않고 지속되어 온다 함.

66) 2011년 12월 현재 62가구 158명(남 69명, 여 89명)이 거주.

67) 특히 2007년 문화관광부의 고택 자원화 사업에 의해 10년 동안 군에서 수리해 주는 조건과 더불어 마을 한옥 11채의 사용권을 얻어 한옥 민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여기서 생기는 수익금은 적립하여 마을공동체 사업에 사용함.

에서 고령 개실마을을 최우수상 마을로 선정하고 상장과 마을발전기금 300만원을 전달한 바 있다.

개실마을은 종손의 말이라면 누구나 듣고 따르며, 습속도 그대로 남아 있어 이것이 마을의 큰 자산 역할을 하고 있다.⁶⁸⁾ 특히 군수 및 군 공무원들이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부녀회 등의 조직도 마을 발전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2) 경북 의성 '교촌체험마을'

경북 의성군 안계면 교촌리에 소재한 교촌체험마을은 의성의 서부지역 평야지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옛 비안현의 비안향교가 있고, 가까이 맑은 물과 흰모래사장을 자랑하는 지방1급 하천 위천이 유유히 감돌아 흐르고 계절별 들판의 아름다움이 있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⁶⁹⁾이다. 체험마을이 유행하기 전에 주민들이 폐교가 된 교촌초등학교를 직접 구입해 '교촌농촌체험학교'를 만들고, 마을을 살리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았으며, 전국에서 최초로 사무장 제도를 도입해 체험 마을의 기반을 다졌다.⁷⁰⁾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과 팜스테이마을로 지정되어 있으며, 2005년도 제4회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장려상, 2005년도 지역혁신박람회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2006년도 마을가꾸기 경진대회 우수마을, 2007년도 팜스테이 마을 평가에서 전국 4위를 하였고, 2011년에는 농어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았다.

초기부터 7년간 마을 사무장으로 일한 송종국씨는 대구에서 놀이디자인연구소를 운영하던 문화전문가로, 교촌마을의 사무장으로 일하며 농촌체험의 본질은 바로 자기완결구조⁷¹⁾, 즉 농촌체험을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농촌마을이 자기 완결구조를 통해 산업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 보고, 스스로 체험(무엇이든지 스스로 하는 것)과 놀이문화(전래놀이의 복원)를 결합한 농촌 체험프로그램을 개발⁷²⁾하였다. 교촌체험마을이 모범

68) 김성촌의 종손 김병식 위원장은 '살아있는 박물관'이라 할 정도로 개실마을 뿐만 아니라 경상도 일대의 전통과 습속에 밝으며, 2002년부터는 남해 다랭이 마을, 하회마을 등 전국의 마을을 답사하고 배움에도 열심히 임하는 등, 개실마을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였음.

69) 교촌체험마을은 폐교를 구입하여 리모델링한 교촌농촌체험학교, 소하천 정비, 마을조경, 꽃동산조성, 원두막, 야외수영장, 연못, 소공원, 황토방, 숙소, 강당, 식당 등 100여명의 체험 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마을임. 주민은 65가구(농가51호, 비농가14호) 170여 명이며, 특산물로는 쌀(안계청결미), 참기름, 엿기름, 메밀묵, 손두부, 마늘, 보리, 고추, 참깨, 콩 등이 있음.

70) 1994년 폐교된 교촌초등학교의 활용을 고민한 마을 주민들이 2002년 8월 주민 총회를 열어 폐교를 수련원으로 활용하자고 뜻을 모은 후 56명의 주민이 1억 8천만원의 돈을 모아 폐교를 구입하고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원비(2002년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를 받아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2003년 6월 7일 '교촌무지개수련원'을 개원함. 2004년 2월 '교촌농촌체험학교'로 명의를 변경하고 본격적으로 체험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함.

71) 과거의 마을은 자체적으로 먹거리, 에너지, 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등, 외부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완결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

72) 여름에는 농작물관리체험, 농촌체험 캠프, 낚시, 생태 탐사, 쌀사랑캠프 등. 가을에는 벼 베기, 짚풀

적 사례로 손꼽히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 의지로 기금을 조성하여 폐교를 구입하고, 외부의 전문인력을 행정기관의 지원없이 고용하여 운영을 맡겼으며⁷³⁾, 모범적인 부녀회⁷⁴⁾ 활동 때문이다. 교촌체험마을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방문하지 않도록 방문객 수를 제한하는 등, 수익 위주의 운영을 지양하며, 대신 마을주민이 행복한 마을을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4.2 농어촌 지역공동체 사례 시사점

농어촌 지역공동체 사례분석 결과 성공 요인으로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는 지역공동체 리더의 지역 사랑, 사명감, 책임감, 열정, 헌신, 학습/연구 태도, 리더십 등이다. 둘째는 비전과 사명감, 그리고 역량을 갖춘 활동가의 참여나 주도이다. 셋째는 주민 주도 또는 주민 참여에 의한 사업 추진이다. 넷째는 지역 생태자원, 역사/문화자원, 특산품 등, 지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다. 다섯째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 및 이의 전략적 활용⁷⁵⁾이다.

농어촌 지역공동체 사례분석 결과에 의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조사 결과 전통적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풀뿌리형 지역활동가로 변신하여 모범적인 지역공동체를 조성한 사실⁷⁶⁾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전통적 시민운동 활동가 또는 풀뿌리형 지역활동가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사례조사 결과 귀촌귀농인이 중심이 되어 모범적인 지역공동체를 조성한 사실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귀농학교 등, 귀촌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농어촌 지역발전에 동참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 생태자원이나 역사/문화 콘텐츠, 특산품 등,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거나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많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의 재발견이나 창의적인 재해석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농어촌에 자본과 사람이 흘러들어 오도록 하는 정책과 도농 교류 활성화(로컬푸드 운동, 도농협력공동체 등)에 대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 다섯째, 생산(생산자 조합 등), 유통(유통채널의 다양화), 소비(다양한 소비처 발굴), 교환(지역화폐 등) 등, 내적 경제 순환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공급망 구성이 중요하며, 또한 이를

공예, 창작송편 만들기 등. 겨울에는 전통 먹거리만들기, 전래놀이, 누룽지캠프, 민속놀이캠프 등. 그리고 연중 내내 주말 농장, 가족 건강캠프, 리어카 면허증, 전통먹거리 체험, 농촌올림픽 등을 운영. 이 결과 교촌체험마을의 재방문율은 50%를 넘을 정도로 성공적임.

73) 이 사례는 2006년 도입된 사무장 제도의 모델이 됨.

74) 교촌마을부녀회는 1999년 농촌여성일감맞기사업장인 교촌 방앗간을 당면제로 운영하면서 교촌 참기름, 메밀묵, 손두부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하였고, 교촌농촌체험학교 식당, 직거래 장터 등의 사업을 같이 수행함.

75) 정부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마을가꾸기에 나서거나 WTO 체제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 등.

76) 주민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조차도 풀뿌리운동 지역 활동가를 활용하거나 풀뿌리운동 지역공동체의 지원 혹은 협력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공 가능성이 높음.

위한 지역공동체간의 연대 및 네트워크가 중요하다. 여섯째, 대부분의 모범적인 농어촌 공동체는 다양한 정부지원(마을가꾸기 사업, 친환경 농촌체험마을 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농협 팜스테이마을 사업, 정보화마을사업, 농진청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 산림청의 산촌종합개발사업, 농어촌 공동체회사 우수 사업,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등)을 받은 바 있다. 일곱 째, 단순히 농촌에서는 농사만을 지어야 한다는 관념을 지양하고, 1차 산업인 농수산업(친환경농업 및 생태농업 등), 2차 제조산업(농식품 가공업), 3차 서비스 산업(체험마을, 산촌 유학마을 등)이 복합된 산업을 지향해야 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공동체 관련 조직들에 대한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성공 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을 규명하였다. 구체적으로 성공적이라 평가받고 있는 지역공동체 중간지원조직, 다양한 사업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도시형/복합사업형 사회적기업, 그리고 다양한 농어촌 민간자율 지역공동체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지역공동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성공요인은 크게 자원, 사람(리더), 전략, 지원의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역자원에 바탕한 전략, 리더에 의한 올바른 방향 설정과 동기 부여 및 고취, 그리고 적절한 지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자원 측면에서 다음의 지역 어메니티 자원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결합하고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며, 따라서 잠재력 있는 지역자원을 조사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다.

- 자연적 자원: 자연경관, 동식물 자원, 수자원, 지리적 환경 등.
- 문화적 자원: 전통문화자원, 역사자원, 경관자원 등
- 사회적 자원: 각종 시설, 특산자원, 공동체자원, 인적자원, 사회적 자본 등

사람은 크게 리더와 구성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성공적인 지역공동체의 경우 헌신적인 리더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리더가 집단 구성원들로 하여금 특정 목표를 지향하게 하고 그 목표달성을 위해 실제 행동을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인 리더십을 얼마나 잘 발휘하느냐 하는 것은 조직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 요인이다. 따라서 리더의 발굴 및 교육 훈련이 중요하며, 또한 전통적 시민운동 활동가 또는 풀뿌리형 지역 활동가들이 지역공동체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사람과 관련된 중요 성공 요인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리더의 지역 사랑, 사명감, 책임감, 열정, 헌신, 학습/연구 태도, 리더십 등.
- 구성원의 참여와 신뢰, 교육/훈련 등.
- 외부 전문가 혹은 내부 인력의 학습 능력과 전문성 등.

- 성실과 신뢰 등, 사람과 사람 간의 따뜻한 사회적 관계(사회적 자본)

한편 대부분의 성공적인 지역공동체는 외부 환경 변화에 민감하며, 앞으로 다가 올 시장 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지역공동체의 방향을 설정하고 수단을 선택하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하였다. 여기서 전략이란 격변하는 외부환경 속에서 조직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성장시키기 위해 외부환경의 변화에 선응적(proactive)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수단을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말한다. 특히 지역자원을 재발견하거나 창의적으로 재해석하여 사업에 활용한 사실이 많은 바 지역자원의 재발견이나 창의적인 재해석을 통해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모범적이라 평가받는 지역공동체 중 직간접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은 지역공동체는 거의 없었다. 즉, 적절한 정부의 지원과 이의 효과적 활용은 지역공동체의 중요한 성공요인이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공동체의 특성 및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의 지원은 단순 재정적 지원을 넘어 지역 거버넌스 구축 지원, 통합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지원 등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1] 김광선(2011). “지역사회 주도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과제”, 지역발전위원회·지식경제부 공동 주최 「2011 지역발전 컨퍼런스」 자료집,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 2011. 9. 8. ~ 9.
- [2] 김영정(2008). “지역거버넌스와 공동체 운동 - 전주시 ‘전통문화 중심도시 만들기’ 운동의 사례분석”, 「지역사회학」, 9(2), 5-33.
- [3] 류홍변(2010). “안산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2010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자료집), 희망제작소·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96-103.
- [4] 박병준(2012).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 -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모형 및 기본 정책방향을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0(2), 1-26.
- [5] 박병준·김석찬(2012).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DB정보 플랫폼 개발”, 「지역사회연구」, 20(1), 1-21.
- [6] 박병준·최현석(2012). “지역공동체 실태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풀뿌리운동에 기반을 둔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 「지역사회연구」, 20(3), 1-22.
- [7] 배진영(2010).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태와 평가”, 자유기업원, CFE Report, No. 130.
- [8] 엄도민(2010). “지역공동체 사업(CB)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전략”, 강원발전연구원, 정책 Brief 제81호.
- [9] 유성희(2008). “시민운동을 통한 지역공동체 형성과정 연구 - 부산 YWCA의 차황면 생태마을 조성사례를 중심으로 -”, 「시민사회와 NGO」, 6(1), 149-185.
- [10] 유정규(2011). “지역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경제의 역할과 발전과제”, 「2011 한국지역사회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 자료집」, 26-45.
- [11] 유학열(2008). “일본 지역재생사업의 실태 및 특징”, 충남발전연구원, 기본연구 2008-10.
- [12] 이성호(2010).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통한 민관협력방안 : 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를 사례로,” 「커뮤니티비즈니스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전략」 (2010년 커뮤니티비즈니스 한일포럼 자료집), 희망제작소·완주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43-49.
- [13] 조권중(2010). 「서울시 중장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증대방안 연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10-PR-10.
- [14] 최병두(2006). “살기좋은 도시를 위한 지역공동체 복원 방안”, 「지리학연구」, 40(4), 513-528.
- [15] <http://buanpower.tistory.com/> (부안시민발전소)
- [16] <http://cafe.daum.net/Confucian>
- [17] <http://cafe.daum.net/jirisanartschool>
- [18] <http://new.hi-farm.com/store/D04012/>
- [19] <http://www.coreanews.net/section/?knum=11098>.
- [20] <http://www.e-jang.net/index.php>
- [21] <http://www.ieum.or.kr/>.
- [22] http://www.jbse.or.kr/korean/SubPage.html?CID=pages/jeonbuk05_view.php&&co_id=55 (전북 사회적기업)
- [23] <http://www.j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87105>